

청소년 건강 위해 에너지드링크 제재 나선 UAE

두바이지사

에너지드링크의 위험성 인식 부재 속에서 10대들에게는 인기

-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에너지드링크를 즐겨 찾는 10대들이 늘고 있다. 더운 날씨 탓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아랍에미리트의 10대들은 게임과 영화, SNS를 즐기며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드링크를 마시곤 한다.
- 주로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성장기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드링크를 섭취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는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식료품점·슈퍼마켓·약국 등 일상의 공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모들마저 에너지드링크 과다 섭취의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나친 카페인 함량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전반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드링크 청소년 판매 금지 및 세금 부과 결정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에너지드링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6세 미만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금지에 나섰으며, 음식점과 카페에서 에너지드링크가 혼합된 음료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 시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어른을 모수하거나 나이를 속여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는 판매점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과 함께 에너지드링크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 이에 대해 EU와 스위스, 미국은 에너지드링크에 대한 100% 세금 부과는 WTO가 제시하고 있는 세율 20% 비례 턱없이 높은 수치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WTO 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커피 한잔의 카페인 함량에 비해 에너지드링크의 카페인 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음료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1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에너지드링크 구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

UAE 정부 정책 주시하며 수출전략 세워야

-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강경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드링크 수출전략 수립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